

2016 지평 사회책임보고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실천



# 01

## 법률교육 지원

### 인턴십 프로그램

지평은 2016년에 세 차례에 걸쳐 인턴십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75명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1~2주의 기간 동안 변호사 업무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평은 소송서면, 의견서 작성, 계약서 검토, 자유주제 발표 등의 과제를 부여하였고, 이에 대한 평가와 면접 과정을 거쳐 총 9명의 학생을 채용하였다.

인턴 선발과 채용결과에서 서울대 편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인원 중 다수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이고, 총 채용인원 9명 중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이다. 다양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인원을 선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2016년 하계 심화	2016년 하계 일반	2016년 통계
기간	7/4~7/8(1주)	7/11~7/22(2주)	1차 : 12/26~1/6(2주) 2차 : 1/9~1/20(2주)
대상	2학년(7기) (2015 동계인턴 중 우수자) 고려대 1명, 서강대 1명, 서울대 3명, 성균관대 1명, 연세대 2명, 원광대 1명	2학년(7기) 고려대 3명, 서강대 1명, 서울대 13명, 연세대 1명, 이화여대 1명	1학년(8기) 건국대 1명, 경희대 1명, 고려대 3명, 서강대 3명, 서울대 26명, 서울시립대 1명, 성균관대 3명, 연세대 2명, 이화여대 2명, 전남대 1명, 중앙대 1명, 한국외대 1명, 한양대 2명
인원	9명	19명	47명
채용	2명 (서울대 1명, 연세대 1명)	3명 (서울대 3명)	4명 (서울대 4명)

### 법학전문대학원생이 전하는 실무수습 후기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손영우



후배들이 지평에 대해 물을 때 자신 있게 '사람을 먼저 보는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가 실무수습 과정에서 수행했던 과제 때문입니다.

로펌 실무수습을 가기 전 조언을 구하면 선배들은 수습 과정 중 수행하는 과제를 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대다수 로펌 실무수습 과제의 목표는 오직 '법' 실력을 측정하기 위함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의 성향, 가치관 등과는 무관한 과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평에서만큼은 이러한 통념을 깨는 과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본인의 신념과 맞지 않는 사건을 배당 받았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정답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과도 무관해 보였던 이 과제를 받고 어리둥절했습니다. 법 실력을 측정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과제를 차분하게 수행하였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저에게 이 주제보다 더 좋은 질문은 없었습니다. 많은 로펌이 스스로 구성원을 존중하고 사회에 공헌한다고 홍보하지만 정작 실무수습부터 인재채용까지 아무것도 와 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평은 '법' 실력 이전에 '사람'을 본다는 것을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유현정

지평에서 보낸 2주일은 변호사로서의 삶을 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실무수습의 첫 순서인 환영식이 끝나자마자 실무수습생들은 '대외비'라고 쓰인 두꺼운 서류 봉치를 받게 됩니다. 변호사님이 직접 수행하셨던 사건입니다. 폰트도 형식도 제각각인 글 봉치에서 쓸만한 정보를 추려냅니다. 혹 비어 있는 곳이 있다면 클라이언트와의 대화를 통해 필요한 내용을 얻어내야 합니다. 실무수습 중에는 변호사님께서 클라이언트 역할을 맡아주셨습니다. 이미 주어진 사실관계를 되문거나 불필요한 문답을 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채용을 위한 평가가 중심이 되는 보통의 실무수습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혼자 과제를 해서 제출합니다. 그러나 지평의 실무수습은 과제 해결을 위한 토론을 중시합니다. 조원들과 열심히 의견을 나누며 큰 줄기를 잡고 결론을 다듬어갑니다.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과 협업하여 최고의 결과를 내는 것이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지평이 실무수습을 하는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바도 꼭 같습니다. 논의된 내용을 완성된 글로 버려내는 것은 다시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이민주



지평의 실무수습에서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매 순간 새로운 삶을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법무법인의 실무수습은 기간이 짧습니다. 통상 1주 정도로, 해가 갈수록 더욱 짧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무수습은 '일방적 지식 전달' 또는 '인턴을 평가하기 위한 과제 제출', 두 가지로만 정철되고 합니다.

그러나 지평에서의 실무수습은 달랐습니다. 지평은 학생들의 관심사별로 변호사그룹을 연결하여 따로 일정을 만들고,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통상 불편할 수 있을 법한 식사자리에서조차, 자유로운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변호사님의 관심에 따라 짧게 일상 속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정동길 투어'를 통해 서울의 중심을 함께 걸으며 거리마다 쌓여있는 삶의 맥락을 읽어내었던 시간은 지금도 인상적입니다.

실무수습을 함께 한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서로의 꿈과 비전, 또 평소 가지고 있었던 관심사를 이야기하면서 진정으로 또 하나의 삶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평의 실무수습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간, 구성원 모두를 진정한 동반자로 인식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 02

## 인문학 연구 및 지원

### 법률교육기관, 공익법률활동에 대한 기부

지평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예비법조인인 법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전 지원을 한 바 있다. 우수 법조인력 양성을 위하여 애쓰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노력에 힘을 보태는 차원의 지원이었다. 다만, 기존의 금전지원이 서울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시정하고 혜택이 보다 다양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지평은 법학전문대학원뿐 아니라 공익법률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2016년에는 인권법학회 연합[인·연] 캠프를 후원하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을 지원했다.



### 법학 교육 지원

후배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 또한 기성 법조인의 중요한 책무이다. 이에 지평은 예비법조인을 교육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 지평의 변호사들은 여러 법학전문대학원에 직접 출강하여 학생들에게 생생한 실무경험을 전달하고 있다. 모두 8명의 지평 변호사가 6개의 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하였다.

#### 2016년 출강현황

김지형 대표변호사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1, 2학기
김지홍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1학기
박용대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1학기
박호경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2학기
배성진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1, 2학기
임성택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1, 2학기
정 원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2학기
최승수 변호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1, 2학기
최승수 변호사	연세대학교 공학경영대학원 겸임교수	2학기

지평은 인문학의 토대가 넓어져야 하고, 인문학의 기초 위에 법학이 서야 한다고 믿는다. 이에 지평인문사회연구소(대표 김석동)를 사단법인 형태로 만들어 인문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지평인문사회연구소의 김석동 대표는 중앙일보 J포럼, 서울대학교, 금융연수원, 서울지방경찰청 등 다양한 곳에서 '새로운 역사와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의 도전'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하고 진취적인 미래에 대한 담론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지평인문사회연구소는 인문학 발전을 위해 출판을 지원하고 있다. 2016년에는 전원철 박사의 '사국사(Tarixi arba' ulus)' 번역출판을 지원하였고 시베리아, 중국 등지에서 유적탐사를 진행하는 등 역사탐방도 진행하고 있다.



# 03

## 법제 연구

### 연구용역과제 수행

법제도에 관한 연구는 법률가의 전문성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지평은 다양한 주제의 연구용역을 현저히 저렴한 비용을 받고 수행하였다. 2016년 한 해 동안 총 13건의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연구용역 의뢰처	연구용역 과제명	연구용역 기간
한국거래소	베트남·인도네시아 해외상장 환경 법률자문 용역	2016-01-15~2016-02-29
외교부	국제빈곤퇴치기금법 제정안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2016-02-01~2016-03-31
법무부	투자·비즈니스 가이드(호주편)	2016-03-16~2016-09-15
법무부	투자·비즈니스 가이드(이란편)	2016-03-16~2016-09-15
법무부	투자·비즈니스 가이드 핸드북(이란편)	2016-03-16~2016-04-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 R&D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지침 개발	2016-03-22~2016-04-3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국제공동연구 해외기관과의 협약체결 관련 법률지원 용역	2016-07-12~2016-09-02
(주)신한은행	인도네시아 담보 제도 및 채권회수 용역	2016-08-01~2017-03
법무부	투자·비즈니스 가이드 핸드북(라오스편)	2016-08~2016-08-30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담보주택 관리 효율화 방안	2016-08-05~2016-12-1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지원사업 지방비 기술료 징수 방안에 관한 연구	2016-10~2016-1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해외 R&D 제도 분석 및 에너지 국제협력 공동연구 개선방안	2016-11-30~2017-04-30
항공안전기술원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2016-12-29~2017-01-03

### 공직 업무 수행기 박성철 변호사



공직 업무로는 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활동하는 일과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공직 업무는 단기적인 수익성 관점에서만 본다면 대형로펌이 선호할 일은 아니지만, 제도 설계나 입법 초기부터 관여하면 관련 법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관련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므로 사안에 따라 로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국가기관 등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말씀 드리면, 과거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을 맡았고, 현재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심의가 필요한 사안에 따라 개최되는 위원회의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법률쟁점이 불거질 수 있는 사안에서 변호사 위원으로서 법률문제 전반을 사전에 살펴보고, 위험과 책임 소재를 알려드리는 것이 주된 역할입니다.

저는 국가기관이 발주한 연구용역을 여러 차례 수행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법 발전방향 연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교류협력의 기본법을 만드는 작업이었는데, 보고서에 담은 내용도 많았을 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연구원들이 모여서 남북관계 전반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유치중등교육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안 마련 정책연구'의 경우 보고서에 제안한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령 개정할 때 많이 반영되어서 뿌듯했습니다.



로펌이 연구용역을 맡으면 변호사들이 소송과 자문을 하면서 느낀 문제의식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통상의 소송과 자문에서는 현행 법률의 해석의 범주를 넘기 어려운 한계가 있지만, 연구용역은 그 틀을 넘어서 개정안까지 자유롭게 제안하여 입법론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민간에서 입법이나 제도개선에 관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실제로 공부가 많이 됩니다.

앞으로 지평의 변호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연구용역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들에게는 연구용역이 대개 낮은 일이기 때문에 협업의 체계와 방식을 만드는 게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책임연구원이 얼마나 잘 이끌어주는지도 중요하지만 책임연구원에 수동적으로 의존하면 일을 할 때 흥미가 줄어들 것입니다.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도해야 일이 낫살고 힘들어도 돌파해나갈 수 있습니다.



# 04

## 환경실천 소모임 활동

환경실천소모임은 2015년 9월부터 생활 속에서 소소하게 환경보호를 위해서 노력하자는 마음으로 시작되었다. 변호사 3명, 직원 3명, 총 6명의 환경지킴이로 구성되어 있고, 한 달에 두 번씩 정기 소모임을 가지고 있다.

2015년 하반기에는 종이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친환경 마이보틀을 회사에 배포하였다. 마이보틀과 친해지자는 의미로 '나만의 마이보틀 꾸미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종이컵 사용 목표량을 정하여 실제 사용량을 점검하면서 차츰 사용 개수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종이컵 절약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2016년 연말부터는 전기절약 캠페인으로 지평 본사 건물의 자동소등 정책을 제안하고 실천하고 있다. 야근과 휴일 근무가 많은 로펌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불필요하게 불이 켜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매주 금요일 자정에 지평 본사의 전등을 자동 소등하고, 주말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해당 구역만 불을 켜기로 하였다. 초기에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매일 자동소등을 하자는 제안이 나올 정도로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환경실천소모임은 소소한 생활 속 실천을 목표로 하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환경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2016년에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다 함께 환경운동을 하자는 취지로 공익런치를 제안하여 '천연에센셜 오일을 이용한 천연방향제 만들기'와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친환경 대안생리대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또한 2016년에 '중고책방'을 운영하여 각자 소장하고 있는 책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반응이 좋아서 중고책 나눔을 상설화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환경실천소모임의 소소한 실천이 오랫동안 이어지도록 지평의 환경지킴이들은 오늘도 즐겁게 노력하고 있다.



# 05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돕다

### 사회적기업 거래

지평은 설립 이래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2016년에는 중증장애인 작업장에서 복사용지를 구매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회적기업 하상점자를 통해 점자명함을 제작하고 있다. 지평에서 고객들에게 내드리는 커피는 공정무역 업체인 아름다운가게에서 구입한 것이다. 다만 아직 사회적기업 등과 거래하는 규모는 크지 않다.

빛나눔보호작업장  
25,074,000 원

하상점자  
2,004,000 원

아름다운가게  
960,000 원



### 사회적기업을 위한 공익활동

지평과 두루는 2016년 한 해 동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관련 법률자문, 사회적경제 영역에 관한 제도개선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 주요 활동

- 루트임팩트와 협력하여 성수동 소재 소셜벤처 법률자문 (트리플래닛, HGI, 루트임팩트, 닥터키킨, FLRY, 마리몬드, 위누, 프라미슈, 두손컴퍼니, 베네핏 매거진 등)
- 동그라미재단 로컬챌린지 프로젝트 참여 기업 법률자문(영주시 다문화희망공동체 등)
- 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협력 기업 법률자문(다누리맘 등)
- 루트임팩트와 협력하여 성수동 소재 소셜벤처 대상으로 법률교육 '로큰롤' 진행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협동조합 제도개선연구회 참여

### SK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 법률지원

지평은 두루와 함께 2015년부터 SK 사회성과인센티브 (SPC) 프로젝트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다. SPC 프로젝트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가치를 평가한 후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프로젝트이다. 지평과 두루는 SPC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맑은손 공동체협동조합, 파머스페이스, 세진플러스 등 SPC 프로젝트 참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도 다수의 법률자문을 제공하였다.

### 루트임팩트와 협력의 폭 확대

지평과 두루는 2015년 '루트임팩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성수동 소재의 소셜벤처에게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고, 법률교육인 '로큰롤'도 진행하였다. 2016년의 법률자문은 트리플래닛, HGI, 루트임팩트, 닥터키킨, FLRY, 마리몬드, 위누, 프라미슈, 두손컴퍼니, 베네핏 매거진 등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지평은 법률자문과 법률교육을 통해 성수동 소재의 기업들과 점차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어 가고 있다.

### 동그라미재단 로컬챌린지 프로젝트 참여기업 법률자문

지평과 두루는 2016년부터 지역사회의 착한 기업을 키우고자 노력하는 동그라미재단과도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평은 동그라미재단의 로컬챌린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기업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하게 되었다.